

대보 화강암

1. 대보 화강암

중생대 쥐라기에 생긴 대보화강암

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화강암은 대부분 【중생대】 때 여러 차례의 지각변동 때 있었던 활발한 화산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것들로 【중생대】 【트라이아스기】의 【송림변동】과 【쥐라기】의 【대보조산운동】 그리고 【백악기】의 【불국사 운동】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.

지질시대 중 중생대 쥐라기인 2억 ~ 1억 6000만년 전에 우리나라의 땅속 약 7 ~ 20km 아래에는 커다란 마그마가 있었다. 그리고 이 마그마는 지하에서 식어 화강암이 되었거나 지표 밖으로 나오면서 화산활동을 일으켰다. 이때 깊은 땅속에서 생성된 화강암은 지각변동이나 그 위를 덮고 있던 암석들이 풍화·침식 작용을 받아 수백만~수천만년에 걸쳐서 땅위로 서서히 올라와 지표에 노출되었다. 이 화강암을 【대보화강암】이라고 한다.

서울을 비롯해서 수원, 의정부, 동두천, 포천, 춘천, 원주 제천 등 많은 도시들이 대보화강암 위에 자리하고 있다.